

“비상계엄에 무너진 민생·경제, 이제는 회복시켜야할 때”

광주지역 본투표장 현장표정

높은 사전 투표율에 비교적 ‘한산’ 유권자들 희망찬 미래 등 염원 담아 카페 ‘투표 인증’ 할인이벤트 눈길 “사회혼란 수습하고 국정 정상화할”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3일 광주지역 본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어지러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 화합을 이끌어낼 후보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경제와 안보, 외교, 민생 모두 무너진 만큼,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염원이 투표장 곳곳에서 묻어났다. 비록 사전투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본투표장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정권 교체의 열망은 식지 않고 이어졌다.

● 유권자 투표 열기 ‘후끈’

대선 본투표가 펼쳐진 광주 곳곳의 투표소에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유권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동구 지원2동 제4투표소(용산초등학교)는 이른 새벽부터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부모부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등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투표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다양한 세대가 투표장을 찾아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높였다.

첫번째 투표자인 채연기씨(50)는 “화순으로 출근하기 전 미리 투표를 하기 위해 본투표장을 찾았다”며 “이번 선거는 나라의 국운이 달린 선거인 만큼 정직하고 결백성이 담긴 후보를 뽑았다”고 말했다.

채씨는 이어 “사전투표의 경우 부정선거의 여론이 강해 본투표에 참여했다”며 “당선자는 대

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리는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구 동림동 제2투표소(광주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투표사무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장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이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뒤 투표소를 빠져나왔다.

투표 이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한 어르신은 투표소 인근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고, 투표사무원이 생수를 들고 걱정하는 모습은 주변 유권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목발을 짚고 투표에 참여한 김춘삼씨(79·여)는 “최근 고관절을 다쳐 거동이 불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까 걱정했다”며 “고민하던 중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기 전 투표를 했고,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지역 경제를 바로 세울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투표 인증 이벤트 ‘호응’

이날 서구 풍암동 제7투표소 인근 카페에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색적인 이벤트가 마련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카페는 사전투표 및 본 투표 인증 시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유권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카페 사장 A씨는 “투표 독려를 위해 시작한 이벤트인데, 투표를 마치고 가족 단위로 손님들이 몰려와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에 놀랐다”며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극복해 모두가 환하게 웃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도 한 표” 인증샷 물결

광주 곳곳 본투표장에서는 유권자들의 ‘인증샷’ 행렬도 이어졌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최근 MZ세대에서 유행하는 ‘취향별 투표 인증’으로 투표 참여의 기쁨을 누렸다.

청년 유권자는 캐릭터 그림이 담긴 ‘일러스트’에 기표 도장을 찍고 사진을 촬영했다.

K팝 팬들은 아이돌 포토 카드 위에 도장을 찍

고, 야구팬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구단의 캐릭터가 그려진 용지를 활용해 투표를 인증했다.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어 인증샷으로 남기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 유권자는 손목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를 투표 도장으로 찍어 인증샷으로 남겼다.

아이와 함께 투표장을 찾은 학부모들은 투표소 안내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나옥란씨(46여)는 “아이가 쟁쟁준 일러스트 용지로 기표 도장을 찍어 인증 사진을 촬영했다”며 “투표 때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도구로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보기 좋다”고 말했다.

●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옥에 티’

광주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선거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B씨(68·여)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B씨(68)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관리원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투표관리원은 선거관리 규정상 투표용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B씨에게 전달했으나 현장에서 기표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10분께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도 C씨(65·여)가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C씨는 당시 기표용기에 선택을 잘못해 투표용지를 교환을 요구하던 도중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선거관은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D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3일 광주 남구 송암동 제1투표소에서 한 어린이가 어머니의 투표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한편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환준·이수민 기자

“희망 가득한 풍성한 세상 왔으면”

광주 동구 최고령 김정자 할머니

“자녀와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해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에서 최고령자인 김정자 할머니(109·여)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계림1동 제2투표소 계림경로당을 찾은 김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책임감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며 “투표는 민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1915년생인 김 할머니는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자가 광주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대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는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권리를 잊지 않고 실천하는 위대한 행동이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3일 광주 동구 관내 유권자 중 ‘최고령’인 김정자 할머니(109세)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20·30세대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기대”

생애 첫 투표한 전우현 군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해요.”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전우현군(사진·19·고려고 3년)은 3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동림동 제1투표소 광주체육원에서 설렘이 가득한 표정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그는 “전날부터 투표를 한다는 마음에 너무 떨려 잠을 한숨도 못 잤다”며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전군은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학교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계속 교육받았고 주변 친구들도 다 같이 생애 첫 투표에 엄청 기대했다”며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처음이라 많이 떨리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30세대 청년들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은 일자리 확대 등 공약을 성실히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 “민주시민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투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첫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해보니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게 됐다”며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투표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변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920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일곡지구, 문흥지구, 풍암지구, 풍암2지구, 하남1지구, 하남2지구, 수완지구, 봉선·방림지구, 두암지구, 우산지구, 오치·우산지구, 금호·화정지구, 염주지구, 각화동 유동업무 설비해제지역(남측), 중산구 집단지식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4.

광주광역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나. 용도지역·지구(변경)
다. 기반시설 계획(변경)
라. 가구 및 획지 계획(변경)
마.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 민·관원 사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2. 주민의견 청취기간: 2025. 6. 4. ~ 2025. 6. 19.(15일)

3. 열람 및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도시관리계획과(☎062-608-2753), 서구 도시관리계획과(☎062-360-7464), 남구 도시계획과(☎062-607-3912), 북구 도시계획과(☎062-410-6728), 광산구 도시계획과(☎062-900-8523) 및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062-613-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는 계속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에 관련 조서 및 도면 게시

그린공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공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자아인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함께 육아’ 캠페인

육아는 한마음 아이의 큰희망

보건복지부, 전남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